

## 이순신 전사의 비밀코드 ‘편범불반(片汎不返)’

이순신 (이순신 승모인)

<워싱턴 중앙일보 2007년 12월 기고>

지난 16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전사 409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순신의 죽음을 두고는 그 동안 세가지 설이 제기돼왔다.

첫째, 정통사관인 ‘순수 전사설’, 둘째, 당시 정황으로 보아 전쟁을 이기고 살아남아도 대우는 커녕 정적의 시기와 모함에 빠질 것을 염려하여 전투 중에 스스로 전사를 유도했다는 ‘위장전사설’로, 그 극적 구성요소 때문에 소설, TV, 공연작가들이 즐겨 택하는 설정이다. 셋째, 이순신의 묘소가 처음 아산 금성산에 비석, 상석 등 아무런 석물 없이 모셔졌다가 16년 뒤에야 라산으로 이장하면서 석물을 세운 것으로 보아 전사하지 않고 16년간 숨어 지냈다는 ‘위장 은둔설’ 등이 그것이다.

몇 해 전 필자는 이들 이설의 부당함을 다양한 문헌과 사실을 논거로 정리하여 지상에 밝힌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이순신이라는 사람’의 내재적 요소로 이들 이설의 부당함을 지적해 보기로 한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 끈을 고쳐 매지 말고, 참외 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우리 속담이 이르듯이 정황만으로 판단하면 꼼짝없이 생사람을 도둑으로 결론 짓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헌, 기록 이외에 이순신이라는 사람의 사람됨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친필 기록인 난중일기, 임진장초, 서간첩, 유성룡의 장비록과 서애집, 유형외의 행장, 조정남의 난중잡록, 삼가헌감 고상안의 태촌집과 명나라 도둑 진린의 이순신 언급 등을 통하여 공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순신은 첫째, 지독한 원칙주의자였음을 알게 된다. 이순신의 이 타협없는 외곬 원칙주의는 반대로 “신하는 임금에게 죽음으로 충성하고 장수는 죽어도 나라와 백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본분에 극한으로 집착하여 목숨을 담보 하였기 때문에 불과 13척의 선단으로 330척의 일본 선단을 막아서는 용기와 책임의 실천으로 드높은 공적을 이루는 바탕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순신은 죽음을 초탈하는 사생관과 사람의 목숨은 오직 하늘의 뜻에 달린 것으로 사람이 어찌해볼 수 없다는 천명사상(天命思想)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고문과 사형의 위기에 처하여 주위에서 구명운동을 권고해도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 죽게 되면 죽을 뿐이다.(死生有命 死當死矣)”라고 초연했던 것이다.

임진왜란 개전에서 노량결전까지 23해전을 통하여 이순신은 고비 때 마다 그 전투에 꼭 지켜야 할 코-드(지침)를 엄중 주문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왜 하필 마지막 전투에서 총을 맞으셨는지 수궁이 가게 된다.

이순신의 전사를 자초한 노량의 추격전에서 이순신이 내린 코-드는 편범불반(片帆不返-한 조각 작은 배라도 돌려 보낼 수 없다)이었다.

1598년 음력 11월 19일,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적선 500여 척 중 살아남은 50여 척은 도주로를 찾아 죽기로 남진하다가 열린 뱃길인 줄 착각하고 퇴로가 막힌 관음포로 들어서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당연히 이순신은 입구를 틀어 막았고, 잘못 들어선 것을 알아차린 일본 선단은 되돌아 나오는 결사적 돌격전을 감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이때까지 이순신의 기본전술이었던 조총의 사정거리 밖에서의 함포전이 아닌 접근 백병전이 벌어졌고, 지휘관 이순신은 아깝게도 적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 저격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이순신의 죽음을 다룬 논거들이 놀랍게도 이 마지막 관음포 해전의 전술 없는 혼전상황과 이순신의 결전 코-드(한 놈도 살려 보낼 수 없다)의 결의를 도외시함으로써 잘못된 이설들을 낳았던 것이다.

충무공께서는 그의 코-드 편범불반을 마무리하시다가 애석하게도 마지막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전황으로 전사하신 것이다.